

어린이 그림책의 새로운 '이미지' 세계

새로운 매체로의 전환도 가능한 이미지 필요

이호백

아동출판물 기획자



미국 피쳐북 일러스트레이터로 활약중인 이담씨의 어린이 그림책 《아구가 우리를 살렸다》 중에서, 최근 그림책의 이미지는 완성도 높은 구상을 추구하는 경향이다.

▶ 레이몬드 브릿지의 《스노우맨》 중에서

‘편집’의 기능이 출판의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자리잡고 있던 시절에 이미지는 늘 ‘후속조치’, ‘디자인’의 개념으로 처리되곤 했다. 이젠 이런 전통적인 출판의 메커니즘으로는 풀리지 않는 새로운 출판의 영역이 자꾸 만들어지고 있다. 이 경우 문제는 이미지로 귀결된다.

이미지의 새로운 접근방식

이미지를 편집의 가장 핵심적인 위상으로 끌어올린 대표적인 출판사를 든다면, 단연코 프랑스의 갈리마르 청소년부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미 국내에도 유아용 ‘나의 첫 발견’ 시리즈, ‘갈리마르 발견’ 시리즈를 비롯해서 ‘지식의 뿌리’ 시리즈 등이 소개되어 화제를 낳고 있는 출판사다. 이 회사를 이끄는 최고 사령관이면서 아트 디렉터이기도 한 삐에르 마르상씨는 이미지가 읽히고 글이 이미지를 따라오는, 그만의 스타일을 이미 80년대 중반 ‘갈리마르 발견’ 시리즈를 출발하면서부터 펼쳐오고 있다.

그의 가장 큰 관심은 이미지다. ‘백문이불여일견’이라는 말을 출판의 영역에서 새롭게 해석한 그의 접근방식은 ‘하나의 개념’ ‘하나의 주제’에 따라붙는 수많은 이미지였다. 그래서 갈리마르 책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여러 장르의 교섭과 교환’의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말콤 엑스의 흑인운동을 ‘제즈’ 책에서 발견하게 된다든지, ‘늑대의 공포’라는 주제가 전래동화에서부터 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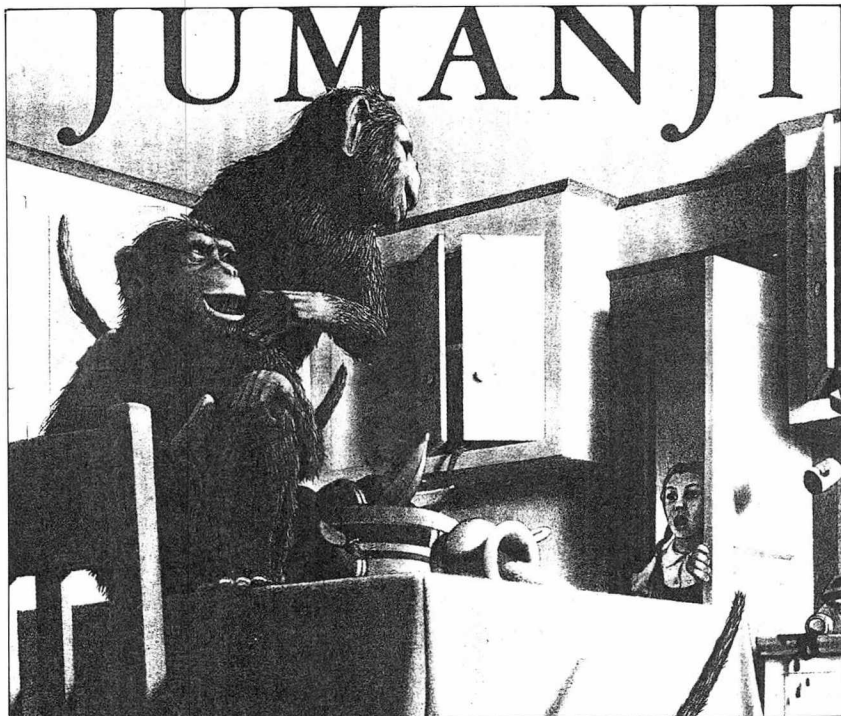
의 문화물에 반영된다든지, 뉴욕의 생성과정을 시공적으로 교환하여 투명하게 누적되는 이미지로 담아내는 작업 등을 우리는 경이롭게 보게 된다.

갈리마르 청소년부에서 낸 아동물들은 이렇게 이미지의 자유로운 전개를 통해 ‘아이들의 지적 수준을 감안해서 만들어내는 친절한’ 접근을 넘어, ‘새로운 지적 패턴을 시각화시키는 난해한’ 기획과정을 거치고 있다.

뉴미디어 시대에 요구되는 이미지

우리에게 이같은 새로운 패턴의 출판물이 던져주는 문제의식은 자명하다. 현존하는 이미지를 넘어 새로운 이미지의 세계를 펼쳐보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멀티미디어를 생산하고 준비하는 출판인들에게 특히 목소리를 높여 요구하는 일이다. (CD-ROM 타이틀이 시장규모와 개발면에서 미국과 캐나다를 비롯한 여타의 서방국가들보다 뒤져 있는 프랑스에서) 전통적인 파피루스로 실현해낸 갈리마르의 이 ‘지식의 뿌리’와 같은 요상한 책자를 보게 된다면 이미 이 책자가 새로운 매체로 쉽게 전환될 수 있는 ‘이미지 덩어리’란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

그것은 여기저기에 널려 있는 ‘오리지널’과 새롭게 구성된 ‘먹음직스러운 정보그림’이 무진장 들어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문화생산지에서 고호의 원작은 늘 쓸 수 있게 준비되어 있는 것인데, ‘고호가 그림을 그리는 장면을 고호풍으로 그린 그림’은 갈리마르



최근 영화화하기로 계약된 그림책 《쥘만치》.

에 속한 일러스트레이터가 만들고 있다. 이제 고호의 원작들을 만나기 위한 고호풍의 창문이 만들어지고 고호의 이미지를 통해 고호를 만난다.

다시 '책' 또는 'CD-ROM'에 필요한 원작 이미지에 대해 생각해 보자. 고호의 원작도, 어느 일러스트레이터가 원숙하게 묘사해서 그려낸 고호의 모습을 그린 그림도 모두 우리가 이미지로 사고하고, 출판하기 위해 필요한 동등한 원작이다. 우리에게 갈리마르 식으로 요리할 만한 원작이 이제 더 소개되고, 박물관에서 풀러나야 할 판국이고, 원작에 들어갈 창을 만드는 일은 그래서 더욱 요원해진다.

불량 이미지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

불량식품은 그 효과가 직접적이므로 학부모 회라든가 어머니회, 소비자 보호단체 등에서 걸러낼 수 있다. 불량 이미지의 경우 '편집'의 과정을 거친 아동 출판물이라면, 소비자들이 그것의 질을 문제삼는 일은, 더구나 그것의 정신적인 해독을 우려하는 일은 거의 없다.

그나마 초기에 다져진 '기획의도'가 시장 형편과 가격, 유통의 문제로 탈바꿈하면서 문제의 초점은 흐려지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출판사들은 자문과 고문, 편집위원들에 의한 '확실한' 근거를 갖추려고 한다. 이미지는 다시 소홀해지고, 불량 이미지 자체를 극복하려는 노력보다는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지 않은 평이하고 무난한 이미지 생산에 전념

하게 된다. 즉 새로운 매체의 시대가 코앞에 닥쳐와도 눈하나 까딱하지 않는 무감한 생산자가 만든 무난한, 그러나 새로운 매체에는 재사용이 불가능한 이미지들이 또다시 양산된다.

문제는 이미지로 사고하고, 이를 방법적으로 풀어줄 '먹음직스럽고' '편하고' '꼭 찬' 원작들을 만드는 일에 주력해야겠다는 점이다. 어린이 책, 그 중에서 특히 그림책이 중요한 이유는 극명하고 선명하며 완성된, 결정적인 순간 포착의 이미지가 지니고 있는 커다란 부가가치 때문이다.

그것은 압축된 아날로그 정보로 이 이미지에서 무한한 하위정보들이 구축되기 때문이다. 잘된 소설 하나가 지니는 부가 가치를 최근의 영상산업이 여러 사례로 입증해 주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성스럽게 가꾸어진 한 권의 그림책(더 넓게 이미지로 푼 정보책까지)이 새로운 매체와 만나게 되면서 새롭게 도약하는 시기가 된 것이다. 알스버스의 《쥘만치》의 경우처럼 이미 그림책이 영화의 원작이 되는 적지 않은 사례를 목격할 수 있다. 또한 전자출판과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는 새로운 카테고리의 출판물도 많아지고 있다.

결론은 과감하게 카테고리를 깨는 일이다. 소위 새롭다고도 하고 창의적이라고도 하는 모든 일들이 그랬던 것처럼 철저하게 기존의 카테고리 밖에서 생각하는 일이다. 새로운 어린이 책을 만드는 일, 높은 부가가치의 이미지를 만드는 일도 예외는 아니다.

얼굴

“어린이문화를 위한 작은 노력이죠”

계간 《아침햇살》 창간한 이윤희씨



이윤희 씨.

국내 최초로 “어린이문학을 근간으로 한 어린이문화 전문지”를 표방하는 계간 《아침햇살》(아침햇살)이 창간됐다.

발행인 이윤희씨(38, 동화작가)는 “어린이들의 문화를 위해서 어른들이 할 수 있는 약소한 첫 시도를 했을 뿐”이라고 겸손하게 말한다. 하지만 《아침햇살》이 지향하는 바를 들어보면 그 의미가 대단히 크고 깊다는 것을 눈치챌 것이다.

“어린이 문학의 심층적인 탐구를 위해 시작했으나 그밖의 다른 인접 분야도 계속 탐색해 나갈 예정입니다. 어린이들에게 권장해 줄 만한 책이나 비디오가 없어서 찢절때는 어른들의 수고를 덜 수 있는 내용도 포함 되겠지요. 우선 어른들이 어린이문화를 대하는 시각을 바로잡아주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어른들이 이 잡지를 보고 어린이들의 문화를 살피우게 하는 데 참여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침햇살》의 기획위원은 이씨를 포함해서 모두 세명. 《바퀴달린 모자》《거인들이 사는 나라》 등의 동시집을 갖고 있는 신형건씨(32)와 아동문학평론가면서 동시평론집 《꿈을 키우는 시읽기》를 펴낸 최명표씨(39)가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각각 치과 의사, 도교육청 공무원의 직업을 갖고 있어서 일요일마다 과천 사무실에 ‘집합’해 기획회의를 갖고, 그에 따른 필자 선정이며 편집 등을 의논한다.

이윤희씨 또한 《코뿔소에게 안경을 씌워주세요》《하얀 저 눈 언덕 너머》 두권의 동화집을 낸 동화작가이다.

“모두들 아동문학에 뜻을 두고 있었기에 이 분야의 공부를 많이 해보자고 모여 출발



했습니다. 그후 동인지를 내기도 했지만 어린이들을 위해서 뭔가 뜻있는 일을 해야 할 필요를 느꼈지요.”

그렇게 해서 나온 《아침햇살》은 첫호부터 아주 많은 내용을 싣고자 한 흔적이 보인다. 특히 ‘우리 아이들의 글쓰기’를 필두로 좌담 ‘무엇을 위한 글쓰기인가’(김종상 이오덕 박상재 심인순 김진순 이윤희)를 통해 최근 사회적인 관심사로 떠오른 어린이 글쓰기 교육의 출발점과 그것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바를 짚어보고 있다. 또 아이들의 글쓰기를 지도하는 사람들의 지도사례와 함께 글쓰기 지도서의 실태를 조사하는 등 글쓰기 내용을 집중적으로 소화하고 있다. 이 가운데 ‘어린이문학의 현주소’에 관한 기획은 특별히 눈길을 끈다. 영상매체 교육 연극 문학 문화운동 만화 출판에 이르기까지 어린이문화에 인접한 분야들을 독자적으로 다루고 있다.

“창간호를 낼 때부터 외부필자들이 원고료도 안받으려 할 정도로 많이 도와줬습니다. 광고로 도움주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러니 힘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꾸려가야지요.”

창간호 펴내느라 많이 고생했지만 “좌충우돌 배워간다”고 선선히 말하는 이씨는 6월 중순경 나올 여름호에 ‘민족정서와 어린이문학’(가제)을 특집으로 마련, 할리우드 만화영화의 집중 분석하고 만화사업의 병폐 등을 심층적으로 다룰 예정이라고 귀띔한다.

— 배은희 기자